

충남리포트 제144호

ChungNam Report

2014. 12. 04.

충남도와 중국 헤이룽장성 교류협력전략

박인성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위원, ispark@cdi.re.kr

충남도 입장에서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농업과 자원, 그리고 지리적 위치의 전략적 가치 활용과 한-중-북 삼각교류 전략을 제안함

요 약

- 올해 12월 충남도와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간의 자매결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헤이룽장성과 중국 동북3성(黑龍江省, 遼寧省, 吉林省) 지구의 개황과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남도와 중국 동북3성, 그리고 북한과의 삼각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봄
- 헤이룽장성은 만주지구에서도 최북단, 최동단에 위치
 - 헤이룽장성을 포함하고 있는 '만주(滿洲)'지구는 러시아, 몽고, 일본, 북한과 남한 등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관계로, 중국정부가 지역발전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중시하고 있는 곳임
 - 헤이룽장성 북부와 동부는 흑룡강과 우수리강을 경계로 러시아 연해주 지구와 접경하고 있고, 남쪽은 남만주(南滿洲)지구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 북부와 접하고 있음
- 중국 정부와 헤이룽장성 정부의 두만강 출해(出海) 향로 확보 열망과 한-중-북 삼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을 적절히 이용하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와 관할 시·군의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삼농(三農) 정책경험 교류 등 쌍방의 공동 관심사를 연결고리로 대(對) 헤이룽장성 및 관할 시·현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만주지구와 대(對)북한 우회접근 통로 개척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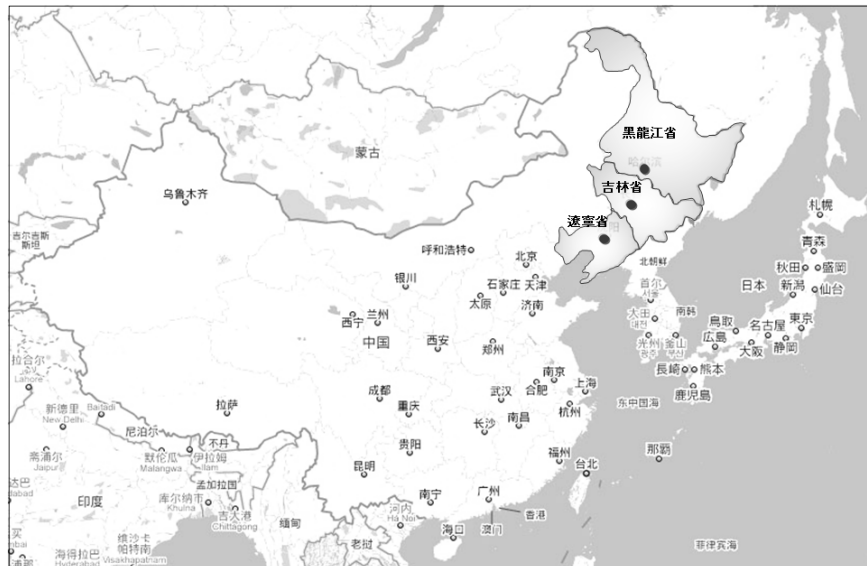
〈요 약〉

1. 헤이룽장성 개황
2. 헤이룽장성과 만주
3. 충남도와 헤이룽장성간 교류 추진현황과 과제
4. 충남도의 대(對) 헤이룽장성 교류전략

헤이룽장성 개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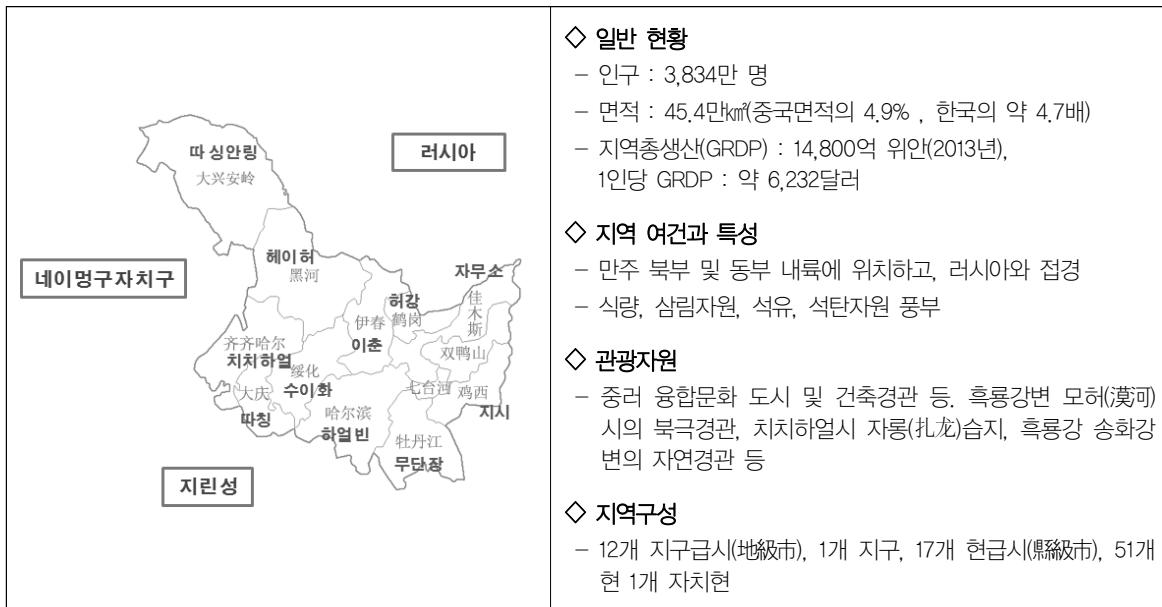
01

-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중국의 동북부인 ‘만주(滿洲)’에서도, 최북단 및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성급 행정단위임
 - 북으로는 흑룡강(黑龍江), 동으로는 우수리강을 경계로 러시아 극동지구(연해주)와 접경하고 있고, 서로는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남으로는 지린성(吉林省)과 접하고, 중북(中朝) 국경인 두만강에 인접하고 있음
 - 헤이룽장성의 북부에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흑룡강(黑龍江)은 중국, 러시아, 몽골 3국 영토를 흐르는 국제 하천으로, 흑토지대(黑土地帶)를 흘러가면서 강물이 거무스레한 색을 띄고,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의 형상이 용과 같다 하여 이 같은 이름을 얻었음
 - 2013년 말 헤이룽장성 인구는 3834만 명이고, 이중 만주족 3%, 조선족 1% 포함
 - 행정구역 면적은 45.4만㎢로 남한 면적의 4.5배임. 이는 중국내 성급 행정단위 중 신장(新疆), 시장(西藏: 티벳), 네이멍구, 칭하이성(青海省), 쓰촨성(四川省)에 이어 6위 규모임



〈그림 1〉 동북3성과 헤이룽장성의 위치

- 2013년 헤이룽장성의 지역총생산액(GRDP)은 14,800억 위안(元)으로 전년대비 12% 성장했고, 1인당 GRDP는 6,232달러임 (중국 1인당 GDP 6,267달러)
- 성(省)내 시현 중 GRDP는 성회(省會) 도시인 하얼빈이 5,142억 위안으로 1위이고, 1인당 GRDP는 석유도시인 따칭(大慶)시가 2만 4,086달러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수이화(綏化)시는 3,607달러로 따칭시의 1/6도 안 되는 수준임



[그림 2] 헤이룽장성 개황 및 위치도

<표 1> 헤이룽장성 주요 도시별 GDP 및 1인당 GDP 현황(2013년)

GRDP 순위	주요 도시	GRDP (억元)	인구 (만명)	1인당 GRDP(元)	
					달러
1	하얼빈	5,142	1,063.6	48,341	7,805
2	따칭(大慶)	4,333	290.5	149,172	24,086
3	치치하얼	1,245	536.7	23,197	3,746
4	무단장(牡丹江)	1,216	279.9	43,452	7,016
5	수이화(綏化)	1,210	541.6	22,340	3,607
6	자무스(佳木斯)	747	255.2	29,278	4,727
7	지시(雞西)	610	186.2	32,757	5,289
8	쌍아산(雙鴨山)	570	146.3	38,972	6,293
9	허강(鶴崗)	396	105.9	37,404	6,040
10	헤이허(黑河)	391	167.4	23,347	3,770
11	이춘(伊春)	286	114.8	24,911	4,022

*** 2013년 중국 전국 27개 성, 자치구중 헤이룽장성의 1인당 GDP 순위는 13위(랴오닝성 4위, 지린성 8위)

자료출처: 宜居城市研究室 (www.elivecity.cn)

헤이룽장성과 만주 ◀

02

- 중국의 동북부 지구는 원래 만주족과 우리 한민족의 영역이었으며, 우리에게는 ‘만주(滿洲)’, 만주별판, 만주평원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 곳임
 - 2007년 8월에 중국 국무원의 동의를 얻은 “동북진흥계획”에서 제시한 “동북경제구(東北經濟區)”의 범위는 중국 동북부 3개 성(東北三省: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과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동부지구를 포함함
 - 단,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를 위해 동북부 3개 성(省), 즉,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3개 성의 행정구역으로 설정
- 2013년 동북3성의 총인구는 약 1억 984만 명으로 중국 전국 인구(13억 6072만 명)의 8.1%, 지역생산총액(GRDP)은 5조 4859억 위안(元)으로 중국 전국 GDP(56조 8,845억 원)의 9.6%를 점함
- ‘동북3성’의 면적은 78.7만㎢로 중국 전국 육지 총면적의 8.2%임

〈표 2〉 헤이룽장성의 전국 및 동북 3성내 비중(2013)

구분	면적(만㎢,)		인구(만인)		총생산액(억 원)		1인당 GDP(달러)
	면적	전국 비중(%)	인구	전국비중 (%)	총 생산액	전국비중 (%)	
중국전국	960	100.0	136,072	100.0	568,845	100.0	6,767
동북3성	78.7	8.2	10,984	8.1	54,859	9.6	8,064
랴오닝성 (遼寧省)	14.6	1.5	4,389	3.2	27,078	4.8	9,962
지린성 (吉林省)	18.7	1.9	2,761	2.0	12,981	2.3	7,592
헤이룽장성 (黑龍江省)	45.4	4.7	3,834	2.8	14,800	2.6	6,233

자료 : 각 지구 면적: “行政区划网(www.xzqh.org.cn)”, 2013中國統計年鑑摘要

● 헤이룽장성을 포함하고 있는 만주지구는 러시아, 몽고, 일본, 북한과 남한 등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관계로, 중국정부가 지역발전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중시하고 있는 곳임

- 특히, 북한(朝鮮), 러시아와 육지로 접하고 있으며,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중북(中朝) 국경선 길이가 1334km임

●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만주지구는 풍부한 자연자원과 일제가 구축한 교통망과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중국 제일의 중공업 및 농업지구였음

○ 1959년 9월, 북만주 헤이룽장성 파칭(大慶)에서 석유가 발굴된 후에는 에너지, 화학, 경방직, 화물운송, 수출 등 부문의 발전과 지역경제구조의 변화가 촉진되었음

- 이어서 랴오하(遼河) 유전과 지린(吉林) 유전이 연이어 개발된 후 만주지구의 석유 생산량이 중국 전국 석유생산량의 약 50%에 달함

- 쑹랴오(松遼)평원에서 발해에 이르는 산구(山區)에 매장량이 70억톤이 넘는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중국의 양식, 자원창고

○ 과거에는 “만주 별판은 모두 수수나 콩”이라 했으나, 현재는 수수가 옥수수로 대체되었고, 옥수수, 벼, 밀의 생산량 점유율이 65%에 달함

- 벼와 밀은 만주지구의 양대 식량작물이고, 벼농사는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랴오하, 쑹화강 등 수리관개시설 수준이 양호한 동만주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 헤이룽장성의 밀 생산량은 만주지구 총생산량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콩 생산량 비중은 헤이룽장성 65%, 지린성과 랴오닝성이 각각 15%, 네이멍구 동부가 5%임

○ 만주지구 목재생산량의 중국 전국 점유율은 약 50%에 달하고, 대소 싱안령(大興安嶺, 小興安嶺)과 백두산(長白山) 지역은 중국 최고의 원시림 지역임

● 만주지구는 석탄자원이 풍부해 화력발전 위주이나, 수백만kw에 달하는 수력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중북 국경하천인 압록강은 창바이(长白) 조선족 자치현(북한측에선 혜산)에서 단둥 입해구(入海口)까지 낙차가 680m이고, 유역의 연간 강수량이 약 870mm에 달하므로,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압록강변 수풍(水豊)발전소는 1944년에 높이 106.4m, 넓이 30m, 길이 900m의 댐을 완공했고, 1980년대에 설비용량을 900MW로 확충했음



〈사진 1〉 중국 쪽에서 본 압록강 수풍댐

● 교통수송체계

- 최근에 선양-파렌, 선양-창춘-하얼빈, 창춘-지린-옌지-투먼-훈춘 구간 등의 동북3성지구내 주요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망이 기본적으로 개통, 연결되었음
- 만주지구의 연해운수는 랴오닝성 파렌, 잉커우(營口)를 중심으로 하고, 단둥과 진저우(錦州)를 양 날개로 함. 항구와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주요한 중추도시는 파렌, 선양, 창춘, 하얼빈, 잉커우, 자무쓰 등임.
- 하얼빈, 자무쓰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수운 항구 건설과 랴오둥반도(遼東半島)의 파렌항(大连港)과 산둥반도의 옌타이항(烟台港)을 연결하는 해상통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주요 공항은 동북3성의 4대 거점 대도시인 파렌, 선양, 창춘, 하얼빈과 옌벤 조선족자치주 수도인 옌지(延吉)시의 차오양완(朝阳川) 국제공항과 백두산 관광 거점 도시인 바이산(白山)시의 장백산 공항이 있음
- 백두산 관광을 위해 장백산 보호구 내에 건설된 장백산 공항은 2009년 5월부터 베이징, 창춘, 옌지 간 항공노선을 운행하고 있음

●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

-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만주지구에서 대형 국유기업의 침체, 파산과 노동자 실직 문제 등이 심각하게 돌출되었음
- 이는 대형 국유기업의 비중이 과다하고, 이들의 생산설비가 노후화되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과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 때문이었는바, 이를 “동북현상”이라 불렀음
- 1990년대 이후에는 농업분야로 문제가 확대, 돌출되면서 “신동북현상”이 출현했음. 이것이 2000년대 이후 추진된 “동북진흥공정”의 주요 배경임

● 동북진흥공정 관련 주요 내용

- 동변도철도 건설 계획
- “동부변방철도(东边道)”공정의 시작은 2004년 12월 4일, 중국 철도부와 동북3성이 베이징에서 “하얼빈-파렌 여객전용선과 동북부 동부 철도 합작 건설 회의(合作建设哈大铁路客运专线和东北东部铁路通道会谈)”와 협의서 체결식을 거행하면서부터임
- “동변도(东边道)”는 북에서 남으로 중·러, 중·조 국경을 달리는 철도를 가리키며, 총연장 약 1380km, 북의 헤이룽장성 무단장(牡丹江)시의 수이펀허(绥芬河)에서 출발하여 지린성의 투먼(图们)시, 통화(通化)시, 랴오닝성의 번씨(本溪)시, 단둥시, 좡허(庄河)시를 경유하여 남의 랴오닝성 파렌(大连)항에 연결됨
- 동만주지구 10여개 시(市)와 30여개 현(县)을 지나고, 철도 연변 영향권 총면적이 22만㎢이고, 인구 1800여만 명임
- 2007년 8월,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동북지구진흥계획(东北地区振兴规划)”은 “1개 주선(主线)”과 “6개 가속화(加快)”를 핵심 목표와 과제로 제시함
- 1개 주선은 “노공업기지(老工业基地) 진흥 촉진”이고, 6개 가속 대상은 ①개혁개방 보폭, ②구조조정과 승급, ③지역합작 진행과정, ④자원 고갈형 도시의 경제구조 전환, ⑤자원 절약형 환경우호형 사회 건설, ⑥교육, 위생, 문화, 체육 등 각 항 사회사업 발전임
- “창지투 개방개발촉” 개발계획
-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중국 두만강 구역 합작개발계획 강요 -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하여(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 계획을 승인

하였음

- “창지투(長吉圖: 長春-吉林-圖們)”지구는 지린성 창춘시, 지린시 부분지역과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를 포함하며, 동북아의 지리 중심에 위치하고,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중심이고, 중국내 최대의 조선족 인구 집중거주지인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를 포함하고 있음
- 계획의 주요 목적은, 2020년까지 두만강지역 합작과정에서 국경(沿邊)지구의 국제합작과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국경지구 경제사회 발전을 가속화하여, 변경민족지구의 발전과 안정을 추동하고, 이 지역을 동북아 경제기술합작의 중요 플랫폼(平台) 및 동북지구의 새로운 중요 성장극(增長極)으로 건설한다는 것임



〈그림 3〉 동변도와 창지투개발축

- 중국의 동북3성중 내지(內地)에 속하는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출해항구(出海港口) 확보를 위해서 두만강 출해항로와 북한의 나진-선봉지구와 철도 연결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바, 우리의 대(對)중국 만주전략에 국가와 지자체간 협조와 역할분담이 필요함.
- 헤이룽장성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요 물류축인 하얼빈-창춘-선양-파론허 외에, 하얼빈-쑤이펀허-훈춘축을 통해서 북한의 나진항과 연결하는 통로, 그리고 “동변도” 철도를 통해서 지린성 옌비옌 조선족 자치주 투먼(圖們)시에서 나진항으로, 그리고 랴오닝성 선양(沈陽)-단둥 축을 통해 북한의 신의주로 연결하는 통로 확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

▶ 충남도와 헤이룽장성간 교류추진 현황과 과제

- 충남도와 중국 헤이룽장성 간 교류는 2009년 2월 충남도 도의회가 헤이룽장성을 방문하여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올해 12월 안희정 지사가 헤이룽장성 수도 하얼빈을 방문하여 루하오(陸昊) 헤이룽장성 성장과 충남도-헤이룽장성 간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다.
- 충남도 측에서는 ‘하얼빈 빙등제’(2010),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2011), ‘중러 박람회’(2014) 등 헤이룽장성 주최 행사에 참석했고, 헤이룽장성 측에서도 ‘세계 대백제전’(2010) 등 충남도 주최 행사에 참석했고, 양측이 모두 상대방의 청소년들을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했음
- 충남도 관할 시·군 중 중국 헤이룽장성내 시·현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있는 곳은 홍성시와 하이린(海林)시, 예산군과 지동(雞東)현이 있음
 - 하이린(海林)시는 헤이룽장성 동남부 무단장(牡丹江)시에 속한 현급시이고, 무단장시와는 12km, 하얼빈과는 290km 거리임. 총인구 42.2만명(2012)이고, 소수민족 중 조선족이 총인구의 8%를 점하고 있고, 만주족, 회족, 몽고족 순임. 행정구역 면적은 8817km²이고, 8개 진(鎭)과 123개 행정촌을 관할하고, 지형 특성은 “산이 아홉이고, 나머지 반은 물이고 반은 밭”이란 말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산구(山區)임
 - 지동(雞東)현은 헤이룽장성 동남부 지시(雞西)시 관할 현(縣)이고, 남으로 러시아 극동지구와 접경하고, 총인구 33만명(2012), 행정구역면적 3243km²임. 8개 진(鎭)과 3개 향(鄉), 123개 행정촌이 있고, 3개 향중 2개가 조선족향임. 지형 특성은 “산이 일곱, 물이 반, 밭이 반의 반”이란 말로 표현됨
- 향후 전략과 과제
 - 충남도의 입장에서 헤이룽장성을 포함한 중국 동북3성 지구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둥성과 하북성 등 중국 황발해 연해지구에 비해, 교류협력 전략 추진 대상의 우선

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지구의 에너지, 식량 등 자원과 러시아, 몽골,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위치 등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충남도와 헤이룽장성 간의 실제적 구체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한중 지방간 교류를 “정부 주도, 행사참여 위주”에서 민간과 기업분야 교류로 확대, 다양화 추진 필요함.
- 헤이룽장성과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한중 간 지방 차원 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 만들기를 충남도가 선도
- 이와 동시에, 충남도 관할 시군과 헤이룽장성 관할 시현간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홍성군과 하이린(海林)시, 예산군과 지동(雞東)현 간 삼농문제 등 쌍방 지역 현안 관심과제에 대한 정책경험 교류 등 교류협력 콘텐츠 발굴 노력이 필요함
- 1단계로 헤이룽장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자원과 식량창고로 불리는 북만주지구에 교류협력거점을 구축하고, 다음 단계로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 남만주와 동만주 지구로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북한으로의 우회접근을 통한 한-중-북 삼각교류 프로젝트를 구상, 추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04

▶ 대(對) 헤이룽장성 교류 전략과 과제

- 만일 남북한간 관계가 호전되고 경제교류가 활발해 지면, 한반도와 접하고 있는 중국 동북3성과의 육로를 통한 직접 경제교류가 촉진, 활성화될 것이고, 동북3성의 발전 양상과 중국내 위상이 광동성 못지않게 현저히 제고될 것임
 - 따라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 촉진을 위한 한-중-북 삼각교류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헤이룽장성을 포함한 동북3성 정부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한-중-북 삼각협력 추진을 위한 전략적 거점 조성과 사업 추진 구상을 위하여, 중북(中朝) 접경지역에서 향후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이 큰 거점 도시를 포함한 발전축을 선정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중-북 접경지역은 중국시장 진출과 대(對)북한 교류 및 합작의 우회통로 개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충남도가 헤이룽장성을 포함한 동북3성과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을 선도한다면 국책사업 선정 등의 지원을 받아 낼 가능성이 큼
 - 이 같은 맥락에서 아래와 같이 중-북 접경지역내 발전 잠재력이 큰 거점도시와 발전축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① 현단계 경제교류와 배후지 경제발전 수준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축으로,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랴오닝성 선양-단둥축을 통해서 북한의 신의주와 연결하는 축
- ② 하얼빈-창춘축을 고구려 유적 관광지인 지린성 지안(集安)으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북한의 강계와 연결
- ③ 하얼빈-창춘축을 백두산 관광지인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으로 확장하고, 이를 거점으로 북한의 혜산과 연결


- ④ 하얼빈-무단장-쑤이펀허 축을 지린성의 투먼(图们)-훈춘-옌지(延吉)-룽징(龙井) 축과 연결하여, 북한의 남양을 통해서 나선지구로 연결하는 축으로, 중국정부의 창지투(长春-吉林-图们) 개발개방 선도구 추진 전략과 옌지(延吉)-룽징(龙井)-투먼(图们) 일체화 추진에 따라 북한 및 러시아 접경지역과의 통상 및 관광 교류의 거점축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중-북 연결축

● ‘3농’관련 정책경험을 교류협력의 연결고리로 활용

- 충남도가 도정의 제1목표로 강조하고 있는 ‘3농’, 즉 농민, 농촌, 농업에 대한 대책은 중공과 중국정부의 지도하에 헤이룽장성을 포함한 중국 동북3성 각 지방정부에서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과제임
 -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한 2004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4년 현재까지 11년 연속 3농 문제는 〈중공중앙1호문건〉의 핵심주제였고,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 취임 후 연속 4년 간 ‘3농 혁신’이 도정의 제1목표임
 - 따라서 ‘3농’을 연결고리로 헤이룽장성을 포함한 중국 동북3성과 북한과의 교류 전략 모색이 필요함
- 헤이룽장성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농민전업협작사 활성화, 농업현대화와 선도기업 활성화, 도농일체화 건설, 농민의료협작 및 복지 확대, 식품안전 등 포괄적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음

- 따라서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력 재인식과 충남도가 추진중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지역순환식품유통구조, 희망마을 만들기 등 3농혁신 관련 경험과 성공사례를 대(對)헤이룽장성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로 발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교류협력 분야와 추진방안
 - 기 추진중인 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교류자치단체 공무원 초청사업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교류협력 확대 추진
 - 충남도와 헤이룽장성, 그리고 이미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교류협력 추진중인 홍성군과 하이린(海林)시, 예산군과 지동(鷄東)현 등의 농촌마을 간 교류 실시
 - 예를 들면, 홍성군 홍동마을과 문당마을의 마을 만들기, 친환경농업 등의 경험을 대(對)중국 교류 콘텐츠로 정리하여 헤이룽장성 내에 마을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양 지역 농민 지도자간의 교류 등을 통한 시범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류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음
 - 충남도-헤이룽장성, 그리고 관할 시·군과 시·현 지역의 농업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과 농촌 지도자,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여 경험교류와 현장답사를 하는 ‘한중 3농포럼’(가칭) 조직, 운영 방안 검토도 필요함 

박 인 성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장

041-840-1169, ispark@cdi.re.kr

◆ 참고 자료 ◆

- 박정철외, 2014,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박인성외, 2010, 『중-북 접경지역의 도시화와 발전축 형성동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인성, 2009,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한울아카데미
- 박인성외, 2000, 『중국경제지리론』, 한울아카데미
- 정종관 외, 2013,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서해안 비전 구상, 충남발전연구원.
- 중국 하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기본계획, 2014.8,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내부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 하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2014.8, 충청남도 내부자료
- 中國黑龍江省人民政府: <http://www.hlj.gov.cn/>
- 中國 黑龍江省 海林市: <http://baike.baidu.com/>
- 中國 黑龍江省 雞東縣: <http://baike.baidu.com/>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인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현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2014.11.26
2014-50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경철	2014.11.26
2014-51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외	2014.12.03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